

|어린이~초등 저학년|

〈불량 오소리와 갈매기〉

메리로즈 우드 글 | 줄리아 기기니 그림 | 보물창고 펴냄

★〈커커스 리뷰〉 올해 최고의 책

★〈북리스트〉 올해 최고의 책

★〈스쿨라이브러리저널〉 올해 최고의 책



황금빛 모래알, 소금기 어린 바람! 바다처럼 반짝이는 감동적인 우정 이야기. 남들과 다르게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는 어린이들에게 자신만의 개성을 지킬 용기를 배우는 훌륭한 교과서가 되어 줄 것이다.

읽기 전 활동

1. 오소리는 무엇을 먹고 살아가는 동물인지 알아봅시다.
2. 갈매기는 무엇을 먹고 살아가는지 알아봅시다.
3. 오소리와 갈매기가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읽기 중 활동

1. 34쪽에서, 먹을 것을 제안하는 갈매기가 오소리의 말에 대답하지 않고 무표정하게 바다를 본 이유는 무엇일까요?
2. “준비된 오‘소리’는 잔‘소리’를 안 듣는다.”라는 오소리의 농담처럼 동음이의어를 이용한 말장난을 만들어 보아요.



1

친구의 방문

셈티무스는 함께 있는 것에
별로 익숙하지 않았다.

셈티무스는 오소리였다.
오소리가 맞나?
문제의 핵심은 여기에 있었다.
셈티무스가 거의 매일 그렇다고 믿어 왔던 것처럼 오소리가 맞다면, 자신에겐 오소리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는 것도 사실이었다.
적어도 셈티무스가 생각하기엔 그랬다.
다른 오소리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진짜 오소리들은 얼굴에 줄 무늬가 있다. 셈티무스는 점들이 있다.
다른 오소리들, 그러니까 증명할 수 있는 실제 오소리들은 술과

3. 아래 인용된 144쪽의 글을 읽고, 우리 동네, 학교, 여행지에서 본 풍경 등 인상 깊었던 광경을 여러 가지 비유로 생생하게 묘사해 보아요.

얼마나 멋진 광경이던지! 저 멀리, 내리막길을 따라 바닷가까지 죽 이어져 있는 케이블카의 전선들이 보였다. 케이블카는 장난감처럼 보였다. 기나긴 모래 바닷가는 물가를 따라 띠처럼 이어져 있었고, 일렁이는 파도의 하얀 물거품들은 우유 거품을 한 숟갈씩 떠서 바다 위에 뿌려 놓은 것 같았다.

읽은 후 활동

1. 나와 친구의 차이점을 찾아보아요.
2. 나와 친구의 공통점을 찾아보아요.
3. 친구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해 보아요.

어떻게 지내는지 자주 궁금해했다. 그들이 좋아하는 음식이나 취미를 추측하는 게 좋았다. 그들의 바람이나 꿈이 뭐지도 궁금이 생각했다.

오소리들은 모두 땅을 파는 것을 좋아하지만, 셉티무스처럼 동물들에게 깊은 호기심을 갖는 일은 드물었다. 이제 셉티무스는 즐겁게 케달을 밟으며 2인승 자전거를 몰고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가며 새로운 기분을 느꼈다.

"누구든 우릴 본다면 분명 깜짝 놀랄 거야!"

셉티무스가 어깨 너머로 소리쳤다.

"분명 우리가 누군지,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어떤 모험을 할지

궁금해하겠지!"

둘은 여정의 마지막 구간인 시장 거리로 방향을 틀었다.

"다들 분명 호기심을 가질 거야!"

셉티무스가 외쳤다.

"우리가 어디 사는지, 하루 종일 뭘 하는지? 뭘 먹고 뭘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야행성인지, 출을 잘 추는지? 우리에게 준비된 큰 계획이 있는지?"

셉티무스는 늘 많은 것에 흥미를 느꼈다. 오믈렛과 오페라, 소라 껍데기와 카약, 오소리의 자격 말고도 여러 가지 것들.

하지만 이제껏 스스로를 흥미롭게 느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